

제 1, 2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에 나타난 교회여성의 역할

최 은 수 교수(교회사)

1. 시작하는 말

최근 한국교회의 보수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교회내 여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직, 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성사역의 적용 범위에 대한 주제는 제외한다 해도, 대부분의 논의들이 현실적인 문제 지적과 대안 마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면서, 교회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결여에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회가 이 땅 위에 설립된 이후, 교회는 경건한 남성과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로 발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의 역사', 즉 남성 위주의 역사 연구와 학습에 치중해 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의 그늘에 가리워 제대로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던 경건한 교회여성들의 족적을 포함하는 '은전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을 전후하여, 서구 학계에서 소위 '잃어버린 역사', 즉 교회여성사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높이 평

가할 만한 저작들이 발간되고 있다.¹ 스코틀랜드 교회사학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²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의 업적이라면 잊혀진 교회여성의 역사를 발굴하여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와 종교개혁 기념일에 즈음하여, 본고는 제1, 2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회여성의 다양한 활동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각 장마다, 먼저 서론적 고찰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당대의 역사적 정황을 교회여성사적 관점에서 개괄한 다음, 이 운동들과 연관된 교회여성의 역할을 부정적, 소극적, 적극적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사실코자 한다.

2. 제1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에 나타난 교회여성의 역할, c. 1540-1592

1) 서론적 고찰

이 시기의 교회여성사를 다루면서, 스티어링(Stirling) 왕립박물관 소속의 킹(E. King) 교수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설립 과정에서 존 낙

¹ 다음과 같은 연구서들을 참조하라: Carl A. Volz, 박일영 역, *초대교회와 목회* (컨콜디아사 1997); Herbert Grundmann, *Religious Movements in the Middle Age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Shannon McSheffrey, *Gender and Heresy: Women and Men in Lollard Communities, 1420-153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Sherin Marshall (ed.), *Women in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 Europ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vinia Byrne (ed.), *Hidden Voice, The Christian Women and Social Change* (London: SPCK 1995).

² Elspeth King, *The Hidden History of Glasgow's Women: The New Factor*(Edinburgh 1993); Leah Leneman, *A Guid Cause: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in Scotland* (rev. ed. Edinburgh 1995); Lesley A. O. Macdonald, 'Women and Presbyterianism in Scotland, c.1830-c.1930' (Unpublished Edinburgh Ph.D Thesis 1994); Eun Soo Choi, 'The Religious Dimension of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The Role of the Scottish Presbyterian Churches, 1867-1918' (Unpublished Glasgow Ph.D Thesis 1996).

스(John Knox)와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 등과 같은 개혁가들이 편파적인 남성중심적 신학에 기초하여 반(反)여성적 가르침을 펼쳤다고 주장하였다.³ 킹 교수는 존 낙스가 기록한 ‘광기어린 여성의 집정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 울림’(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을 인용하면서, 낙스가 여성을 ‘악마의 항구이며 출입구’라고 말한 것에 착안하여, 낙스를 은근히 여성학대자로 간주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⁴

킹 교수 보다는 덜 비판적이지만, 에딘버러 대학의 맥도날드(L. A. O. Macdonald) 박사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과연 킹 교수가 주장한 대로 스코틀랜드 개혁가들이 다분히 여성학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여성적 가르침을 베풀었을까? 또한, 맥도날드 박사가 제시한 대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제도가 위압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제1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의 과정에서 교회여성들이 개혁가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시야를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돌려보자.

2) 역사적 정황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1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서술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다.

³ King, *The Scottish Women's Suffrage Movement*, p.4.

⁴ *Ibid.*

⁵ Macdonald, 'Women and Presbyterianism in Scotland', p. 201.

첫째로, 1560년 공식적인 형태를 취한 스코틀란드 종교개혁을 기준 하여, 그 이전의 개혁운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륙에서의 종교개혁 운동과 같이, 스코틀란드 종교개혁도 개혁전 개혁운동에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세력들은 옥스포드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c. 1329-1384)를 추종하던 롤라드파(Lollard),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인사들,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개혁적 성향을 가진 성직자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⁶ 스코틀란드에서도 내, 외부 양면으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혁 세력들은 롤라드파와 루터파이다. 스코틀란드 롤라드파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은 1494년에 정부 관리들이 에어샤야(Airshire)의 카일(Kyle)에서 폭넓게 자리를 잡아가던 롤라드파들을 검거하면서 드러났다.⁷ 바스키밍의 아담리드(Adam Reid of Barskimming)와 세스녹의 조지 캠벨(George Campbell of Cessnock)을 비롯한 그 지방의 지주들이 주모자들로 밝혀지고, 약 30여명의 남녀(男女) 인사들이 글라스고우(Glasgow)로 소환되어 제임스 4세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존 낙스(John Knox)도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들 중 6명의 명단을 밝혔는데, 낙스가 두 명의 여성 롤라드들의 이름, 즉 헬렌 찰머스(Helen Chalmers)와 마리온 찰머스(Marion Chalmers)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⁸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 롤라드파들에 대한 고소 항목 가운데 '신실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제이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⁹ 이 사건은 글라스고우의 대주교인 로버트 블라카더(Robert Blacader)의 강력한

⁶ J.G. Macgreggor, 최은수 역,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서울: 솔로몬 1997), pp. 20, 31; Nigel M.de.S. Cameron (eds.),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Edinburgh 1993), pp. 694-695. (이후로 DSCHT로 표기함)

⁷ J.H.S.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London 1960), p. 119.

⁸ D.P.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erth 1975), p. 13.

⁹ Macgreggor,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p. 26.

고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4세가 카일의 롤라드파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 일단락 되었다. 몇 년 후에, 세스녹의 존 캠펠(John Cambell of Cessnock)과 그의 아내인 자넷 몽고메리(Janet Montgomery)가 자국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보관한 것과 사사로이 성직자를 자택에 기거케 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강해하게 했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당해 제임스 4세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¹⁰ 우리는 롤라드 운동을 통해 교회 여성의 능동적 역할을 엿볼 수 있다.

루터파 세력과 관련하여, 16세기 초엽 스코틀란드 롤라드파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볼 것 같으면, 롤라드파와 초기 종교개혁 운동과의 연속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롤라드파들이 스코틀란드 루터파를 대표하는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의 추종자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¹¹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롤라드파와 루터파 모두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여 자국어로 된 성경을 배포하여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대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만인사제론을 소리 높여 주장한 데 있었다.¹² 그렇기 때문에, 마부르그 대학교의 프란시스 램버트(Francis Lambert)로부터 루터주의를 소개받고 귀국한, 패트릭 해밀톤이 루터의 가르침, 즉 모든 남성과 여성이 사제라는 점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교리를 외칠 때,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였고, 이런 소문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¹³ 결국 해밀톤은 1527년 성안드류스에서 강의와 대중집회를 통해 루터주의를 설파하다가 약관 24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를 태우는 냄새와 연기가 멀리멀리 퍼지듯이 스코틀란드 남녀 대중들에게 미친 그의 개혁

¹⁰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13.

¹¹ Macgregor,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p. 24; Alexander Cameron (ed.), *Patrick Hamilton* (Kilmarnock n. d), pp.15-20.

¹² Roland Bainton, *Here I Stand: Martin Luther* (Reading 1978), pp. 137, 145, 152-4.

¹³ Cameron, *Patrick Hamilton*, pp. 37-41.

적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¹⁴ 이후, 스코틀랜드 루터주의는 알렉산더 알레시우스(Alexander Alesius), 존 가우(John Gau), 헨리 발네베스(Henry Balnaves) 등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존 낙스를 비롯하여 그의 스승인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의 개혁사상 형성에 일조하였다.¹⁵

둘째로, 1560년을 전후하여, 개혁가들 특히 존 낙스의 활동상을 교회여성사적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존 낙스(c. 1514-1572)가 개혁가적인 이미지를 갖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때는 그의 스승 조지 위샤트가 순교한 이듬해인 1547년 이었다.¹⁶ 낙스를 비롯한 개혁 세력들은 세인트 안드류스(Saint Andrews)로 집결하여 데이빗 비톤(David Beaton) 추기경을 처형하고 그 성을 점령하는 거사를 벌인다. 세인트 안드류스에서 목회직에로의 소명을 확인한 낙스는 그곳에서 바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프랑스 군대에 의해 성이 함락되면서 포로가 되어 19개월 동안 범선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1549년 석방과 함께 잉글랜드로 내려가 베릭(Berwick)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혁 사상을 소신있게 펼치기 시작한 낙스는 1551년부터 1554년까지 잉글랜드 에드워드 6세의 왕실 설교자로 봉직하면서 개혁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호기를 맞는다. 그러나 병약한 에드워드가 1554년에 죽고, 그를 이어 이복누이인 메리 튜더(Mary Tudor)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낙스는 여성통치자들과 악연을 맺기 시작한다.¹⁷ 메리 튜더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섭정 여왕인 귀즈의 메리(Mary of Guise), 그녀의 여식으로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

¹⁴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 122.

¹⁵ *DSCHT*, p. 500.

¹⁶ John Knox,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reprint Edinburgh 1982), pp. 70-79; J. W. Baird, *Thunder Over Scotland: The Life of George Wishart, Scottish Reformer, 1513-1546* (California 1982), pp. 190-206; Thomas M' Crie, *The Life of John Knox* (reprint Glasgow 1976), pp. 22-32..

¹⁷ Knox, *The History*, pp. 107-110; M' Crie, *The Life*, pp. 39-64.

Queen of Scots)가 그들인데, 모두가 열성과 로마 카톨릭 신봉자들이었다. 스틸링 왕립박물관 소속의 역사가자인 킹(King) 교수가 지적했듯이, 닉스는 잉글랜드 메리 튜더의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와 그녀의 미신적인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 1558년에 기록한 '광기어린 여성의 집정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 울림'이라는¹⁸ 저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실, 닉스는 잉글랜드의 메리 튜더를 염두에 두고 이 책자를 기록하였는데, 프로테스탄트에 호의적이었던 엘리자벳 여왕(Elizabeth I, 1558-1603)이 오해를 품는 바람에 잉글랜드와의 관계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닉스의 생애 전반을 살펴 볼 것 같으면, 그는 천성적으로 여성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닉스는 교회여성들을 상담자로 간주하여 자주 서신 교환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았고, 존중하는 닉스의 서신들 중 상당수가 여성들에게 보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가 교회여성에 대하여 매우 고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한 것 같다.²⁰ 닉스의 여성 통치자들에 대한 공격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 카톨릭주의를 신봉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닉스가 용납할 수 있는 여성 통치자는 엘리자벳 여왕과 같이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전파에 협조하는 여성이어야 했다는 말이다.²¹

셋째로, 제1차 종교개혁 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The Scots Confession, 1560), 제 1차리서(The First Book of

¹⁸ Ian Hazlett, 'A Working Bibliography of Writings by John Knox', R.V. Schnucker (ed.),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Kirksville 1988), pp. 185-193.

¹⁹ M' Crie, *The Life*, pp. 117-118

²⁰ R. G. Kyle, *The Mind of Kyle* (Unpublished New Mexico Ph.D Thesis 1972), p. 299.

²¹ William I.P. Hazlett, "'Jihad" against Female Infidels and Satan: John Knox's First Blast of the Trumpet', Willem van 't Spijker (ed.), *Calvin: Erbe und Auftrag* (Kampen 1991), p. 288.

Discipline, 1560), 제 2차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1578)에 나타난 교회여성들의 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560년 8월에 낙스를 중심으로 개혁 인사들이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총 25조로 구성되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람’, ‘인간’ 등 중성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²²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첫 언급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서 목격되는데, 여성이 뱀의 속임을 받고 남성도 여성의 유혹에 빠져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신앙고백서의 계속되는 진술 속에서 볼 때, 타락의 전후 관계는 인정할 지라도,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든 타락 정도의 차등성 내지는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범죄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심판에 대한 경고 이후, 하나님은 여성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속의 약속과 함께 사악한 마귀의 진멸을 말씀하신다.²⁴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한 여성,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인성을 입으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사역 등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을 통해 경건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²⁵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Kingship)과 교회의 머리되심(Headship)을 시종일관 강조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구별 없이, 이런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신앙고백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子女)로서 동일한 영적 혜택과 복을 누리며,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평등한 위치에 있음을 증거한다. 이런 견지에서, 신앙고백은 마지막 제25조 교회에 허

²² ‘The Scots Confession’ in 권태경, 「종교개혁가들의 정치사상」(서울: 요나 1995), p. 200ff.

²³ *Ibid.*, p. 201.

²⁴ *Ibid.*, p. 202.

²⁵ *Ibid.*, pp. 203-210.

락된 선물을 다루면서 '심판 날에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게 육체의 부활이 주어지게 될 것' 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²⁶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신앙의 원리로서 보장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은 제 1차리서와 제 2차리서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진다. 1560년 개혁교회의 정치제도적 틀을 제공한 제 1차리서는 종교개혁의 대전제, 즉 만인사제론과 목회직의 평등성에 충실한 문서이다. 결국, 중세교회의 계서제적인 중앙 집권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결정권을 특별한 소수로부터 다수의 회중에게로 전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 1차리서를 볼 것 같으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지교회 교인들에게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기능들을 부여하였음이 목격된다.²⁷ 남녀 교인들이 누렸던 중요한 기능들은 목사, 장로, 집사들의 선거에서 참정권 행사, 성경 해석을 위한 주례 회동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 집사들에 의해 집행되는 재정 운영에 대하여 개교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 지교회치리회(당회)에서 결정한 출교 결정에 대하여 최종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등이다.²⁸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을 중심으로 제 1차리서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작성된 제 2차리서(1578)에서도 동일한 원리들이 보여진다. 제 2차리서는 제 1차리서에서 명기한 교인의 권리들과 함께 상소권을 추가한다. 모든 교인들은 치리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상급치리회에 직접 상소할 수 있었으므로 최대한 권익을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다.²⁹ 그리고, 제 2차리서는 제후나 지방 유지들이 행사하던 성직임명권 제도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제 1차리서가 명시한 회중의 투표에 의한 개교회 목사의 선출 관례가 회복되

²⁶ *Ibid.*, pp. 227-228.

²⁷ Macgreggor,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p.88.

²⁸ *Ibid.*, pp. 88-89.

²⁹ *Ibid.*, pp. 158-163

어야 함을 강조한다.³⁰

이상과 같은 역사적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제1차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여성들의 신앙적 그리고 실제적 자아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신앙적 확신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그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교회여성들의 개혁적 활동들을 역할 유형 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부정적 역할 유형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섭정 여왕 귀즈의 메리(1554-1560년 재임)와 메리 스튜어트(Mary Queen of Scots, 1542-1567년 재임)는, 공식적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원년인 1560년을 전후하여, 부정적 측면에서 개혁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 모녀는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다는 점, 혈연적으로 프랑스와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였던 점, 개인적으로 일찌감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다는 점, 정치, 외교적으로 외세(프랑스와 스페인)에 너무 의존한 결과 대중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거스렀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혁가들 특히 존 닉스와 대립했다는 점과 결국에는 개혁 세력에 밀려 고통스런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것 등이다.³¹

4) 소극적 역할 유형

여성의 전통적인 위치, 즉 어머니(mother), 누이(sister or sister-in-law), 딸(daughter), 아내(wife)로 집약되는 유형으로써, 이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³⁰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 200.

³¹ Knox, *The History*, pp. 123-128; Jane Drake (ed.), *Mary Queen of Scots* (Pitkin Pictorials 1994), P. 2ff; Antonia Fraser, *Mary Queen of Scots* (reprint Panther Books 1975), p. 23ff.

어머니로서, 싱클레어(Sinclair) 여사는 이스트 로디안(East Lothian) 지방의 소유인 기포드(Gifford)에서 1505년경 스코틀랜드의 제 1세대 개혁가 존 낙스를 출산하였다. 어떤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낙스의 부모는 유복하여 그를 하딩톤(Haddington)에 있는 문법학교에 입학시켜 기초학문을 수련토록 했고,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 되고 명성이 자자하던 세인트 안드류스 대학교에 보내 고등교육을 받도록 배려했다.³² 대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낙스의 호의적인 태도로 볼 때, 그는 어머니로부터 세심한 사랑의 보살핌과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싱클레어 여사와 같이, 멜빌(Melville) 여사는 종교개혁의 제 2세대를 주도할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을 낳았고, 안드류가 두 살 되던 1547년 아버지가 죽자 혼자의 힘으로 그를 키웠다. 불행하게도 멜빌 여사마저 안드류가 12살 되던 해에 병환을 얻어 유명을 달리하였는데, 운명하기 직전에 장손인 리차드와 며느리에게 안드류를 부탁하였다.³³ 12살 이후, 형과 형수의 손에서 자란 안드류 멜빌은 특히 형수의 사랑스런 배려에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³⁴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멜빌이 여성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내로서, 잉글랜드의 베릭(Berwick) 출신인 마조리 보웬스(Marjorie Bowes)는 1555년 존 낙스와 결혼한 첫 번째 여성이다.³⁵ 당시는 에드워드 6세를 이어 잉글랜드 여왕으로 즉위한 메리 튜더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열렬히 신봉하여 개신교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을 때였다.³⁶ 이런 여파로 낙스와 개혁 인사들은 대륙으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을 따라 마조리와 그녀의 어머니도 스위

³² M' Crie, *The Life*, pp. 1-5.

³³ *DSCHT*, p. 556.

³⁴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21.

³⁵ Knox, *The History*, p. 119; M' Crie, *The Life*, p. 60;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 134.

³⁶ David Loades, *The Oxford Martyrs* (Bangor 1992), pp. 20-37.

스의 주네브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방문객들이나 망명자들이 낙스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려고 사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주네브에서의 삶은 늘 긴장되고 피곤한 일들뿐이었다. 마조리는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하였다. 마조리의 묵묵한 헌신을 경험한 주네브의 개혁자 칼뱅은 그녀를 가리켜 '가장 부드럽고 상냥한 여성이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아내감'이라고 칭송했다.³⁷ 주네브에 기거할 동안, 마조리는 두 아들, 나다니엘과 엘르아살을 낳았다. 1559년 스코틀란드 회중파의 요청으로 귀국한 낙스와 그의 가족은 에딘버러에 거처를 마련하여 정착하였다.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낙스에게 너무 많은 과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조리는 가사 일뿐만 아니라 남편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마조리는 망명기간부터 쇠약해진 기력을 되찾지 못하고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1560년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³⁸ 마조리의 죽음은 낙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으며, 그는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충격 때문에 재혼을 하고 나서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³⁹ 오킬트리 경(Lord Ochiltree) 안드류의 여식(女息)이었던 마가렛 스투어트(Margaret Stewart)는 1564년 3월에 존 낙스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⁴⁰ 그들의 결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낙스가 재혼할 당시 그의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었던 반면 마가렛은 젊고 총명한 여인이었던 점, 더 나아가 그녀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스투어트 왕가의 가까운 혈족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낙스를 믿고 추종했던 인사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으며 수년동안 교류 없이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맞보아야 했다.⁴¹ 낙스가 죽던 1572년까지 마가렛

³⁷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17.

³⁸ Knox, *The History*, p. 240; M' Crie, *The Life*, p. 163.

³⁹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18.

⁴⁰ M' Crie, *The Life*, p. 213.

⁴¹ *Ibid.*

낙스는 냉혹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삶의 반력자로서 남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다.⁴²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볼 때, 낙스가 이룩해 놓은 제1차 종교개혁의 업적 가운데 절반, 즉 50퍼센트는 마조리와 마가렛 낙스의 몫으로 돌려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딸(daughter)로서, 엘리자벳 낙스(Elizabeth Knox)는 마가렛과 낙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식들 중 막내였으며, 그녀의 아버지 만큼이나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다. 엘리자벳은 탁월한 개혁가 존 웰쉬(John Welsh, c. 1570-1622)와 결혼하게 되는데, 웰스는 제임스 1세가 금지한 1605년 아버딘(Aberdeen) 총회를 인정했다는 죄목으로 목회지인 에어(Ayr)에서 추방되어 블랙네스 성(Blackness Castle)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⁴³ 엘리자벳은 아이들을 교구 교회의 식구들에게 맡기고 남편의 힘이 되어주 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1606년에 웰쉬는 반역자로 몰려 그의 가족 을 뒤로 하고 프랑스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엘리자벳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남편의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620년에 엘리자벳은 제임스 1세에게 남편의 귀환을 청원하였다. 다음은 엘리자벳과 제임스 1세와의 대화이다.

제임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엘리자벳: 존 낙스입니다.

⁴²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28.

⁴³ Burleigh, *A History of Scottish Church*, pp. 206-7; *DSCHT*, p.861. 1603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함에 따라 양국의 왕관이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당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잉글랜드는 성공회(Anglican Church)를 각각 국교로 인정하고 있었다. 제임스 1세는 절대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적인 통합에 이어 종교통합을 시도하였다. 특히 종교통합 정책이 스코틀랜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공회의 감독제를 주축으로 장로교를 말살시키려 했기 때문이다(Gordon Donaldson, *Scotland: Church and Nation through Sixteen Centuries* <London 1960>, pp. 70-80).

제임스: 닉스와 웰쉬라, 마귀라도 이와 같은 인연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다.

엘리자벳: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이런 인연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자녀들이 몇이나 되는가?

엘리자벳: 세 명입니다.

제임스: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엘리자벳: 모두 여자입니다.

제임스: 하나님께 감사해야 겠군, 만일 그들이 모두 남자였다면, 나는 아마도 이 세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야.

엘리자벳: 내 남편에게 고국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추방령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제임스: 네 남편을 마귀에게나 갖다 주어라.

엘리자벳: 그 마귀를 당신의 신하들에게나 주시지요.

제임스: 만일 네가 네 남편에게 감독제를 수용하게만 한다면 그에게 내려진 벌을 사면할 수 있다.

엘리자벳: (앞치마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앞치마에 내 남편의 머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⁴⁴

엘리자벳은 개혁자의 여식답게 천하를 호령하던 제임스 왕 앞에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자신의 신앙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코틀랜드 교회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 즉 제한된 공적인 활동의 한계 속에서도 개혁 운동의 확산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⁴⁴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34.

5) 적극적 역할 유형

종교개혁의 경향들, 즉 자국어로 드리는 예배, 자국어로 된 성경,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자유 등이 대중들의 종교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었다.⁴⁵ 이런 견지에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교회여성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적이며 또한 주도적으로 이러한 개혁적 흐름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은 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의 과정에서 유일한 여성 순교자인 헬렌 스타크(Helen Stark, 또는 Stirk)가 전형적인 모델이다.

1543년 12월 스티어링(Stirling)에서 모인 스코틀랜드 의회는 오랜동안 방치했던 이단 박멸에 관계된 법령들을 부활시켰고, 그 과업을 데이빗 비톤(David Beaton) 추기경에게 일임했다. 다음해 1월 비톤 추기경이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여러 혐의자들을 심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를 벗었고, 극히 일부는 추방 처분을 받았고, 6명의 인사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⁴⁶ 진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들은 윌리엄 앤더슨(W. Anderson), 제임스 헌터(J. Hunter), 제임스 핀레이슨(J. Finlayson), 로버트 램(Robert Lamb), 제임스 로날드슨(J. Ronaldson), 로날드슨의 아내인 헬렌 스타크 등이었다.⁴⁷ 헬렌 스타크에게 부과된 혐의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전통적인 관습에 의할 것 같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도움을 호소해야 하는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분에게 고통을 호소한 점, 둘째로, 동정녀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호소할

⁴⁵ Duncan Forrester & Douglas Murray, *Studies in the History of Worship in Scotland* (2nd ed. Edinburgh 1996), pp. 37-39; T. C. Smout, *A History of the Scottish People* (London 1985), pp. 49-57.

⁴⁶ M. H. Seymour (ed.), *The Acts and Monuments of the Church by John Foxe* (rev. Edinburgh 1850), p. 622;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14.

⁴⁷ *Ibid.*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 등이다.⁴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눈에 이러한 혐의들은 신성모독적인 것이었다.

당시 사형집행 관례는 남성의 경우 교수형에, 여성은 수장(水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연고로, 헬렌이 남편인 제임스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자 했으나 거절 당했고, 대신 남편의 교수형을 참관하도록 조치되었다. 1544년 1월 25일 퍼스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헬렌은 자신의 운명은 생각지도 않은 채, 교수대에 결박된 남편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남편이여,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셀 수 없이 기쁜 날들을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 날은 가장 즐거운 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고별인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⁴⁹

이 말이 끝나는 동시에 남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헬렌은 수장형이 집행될 장소로 옮겨졌다. 로날드슨과 헬렌 사이에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헬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젖먹이인 막내를 품에 안고 있었다. 톰슨(Thomson)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녀는 그녀의 운명을 준비하였다.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 여전히 그녀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를 보고 군중들은 도무지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자신마저 죽어야 하는 현실 속에 바로 고아가 될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녀는 잠시동안 강직한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고통은 그녀의 품안에 안겨 엄마의 젖을 천연스럽게 먹고 있는 아기와의 이별이었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보듬으며 가

⁴⁸ Seymour, *The Acts*, p. 622.

⁴⁹ *Ibid.*

눌 수 없는 슬픔을 억제하며 아기를 돌보아 줄 친구에게 넘겼다.⁵⁰

헬렌은 손과 발을 묶이우고 물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하였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헬렌 스타크는 그 누구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앙적 확신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진리를 향한 교회여성의 열정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에 의할 것 같으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확신한 교회여성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개혁 운동의 확산에 적지 않은 역할을 감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머리되심(Headship)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신앙한, 교회여성들은 남성 개혁자들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격려하는 개혁 운동의 훌륭한 동반자였음을 알 수 있다.

3. 제2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언약도 운동)에 나타난 교회여성의 역할, 1638 - 1688

1) 서론적 고찰

스털링 왕립박물관 소속의 역사학자인 킹(King)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에 이어 17세기 언약도 운동 기간 동안에도 교회는 반여성적 가르침과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다. 킹 교수는 156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마녀사냥(Witch Hunting)에 너무 큰 비중을 둔 나머지 교회를 여성에 대한 압제 세력으로 간주하려는 인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⁵¹

킹 교수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스털링 대학교(University of Stirling)의 제임스 영(J. Young) 교수는 언약도 운동은 스코틀랜드 교회여성

⁵⁰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16.

⁵¹ King, *The Scottish Women's Suffrage Movement*, p. 5.

게 그들의 지성, 용기,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원칙들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게 되는 호기였다고 주장한다. 영 교수는 언약도 운동에 가담한 교회여성들이 당대 정치적 투쟁의 와중에서 주된 역할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때로 남성들보다 급진적이고 용감하며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고 부연한다.⁵²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킹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였던, 에딘버러 대학의 맥도날드 교수는 17세기 언약도 운동과 교회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King 교수 보다는 Young 교수의 견해에 더 근접한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교수가 여성언약도들을 장로교주의의 방어자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⁵³

영 교수와 맥도날드 교수의 주장이 킹 교수의 견해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면, 여성언약도들이 어떤 동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또다시 우리의 시야를 역사적 정황으로 돌려야 한다.

2) 역사적 정황

제1차 종교개혁 운동은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 제도, 관례 등에 반대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제2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아울러, 잉글랜드 성공회의 감독제도에 저항한 운동이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이 로마 대(對) 개별 국가의 대립이었다면, 17세기 언약도 운동은 국가적으로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 종교적으로 장로교 대 성공회의 대결이었던 것이다.⁵⁴ 장로교가 지교회의 회중들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인 교회정치제도였던 반면, 성공회가 취한 감독제

⁵² James D. Young, *Women and Popular Struggles* (Edinburgh 1985), p. 26.

⁵³ Macdonald, *Women and Presbyterianism in Scotland*, p. 23.

⁵⁴ Andrew Heron, *Kirk by Divine Right* (Edinburgh 1985), p. 29.

는 성직 임명권자인 왕을 중심으로 그가 임명한 감독들을 중심으로 대 중들을 다스리는 제도였다. 장로교는 종교개혁의 원리인 만인사제론과 목사직의 평등성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성직자간 위계 의식을 전제로 하여 회중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 감독제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런 갈등은 1603년, 즉 잉글랜드의 엘리자벳 1세가 후사 없이 죽자 당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차기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되어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등극하면서 양국의 왕관이 하나로 통일된 시점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었다.⁵⁵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부터 감독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제임스는 감독제를 통해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일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제임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 총회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1604년의 총회를 아무 이유 없이 연기시켰던 것이다. 이에 항거하여 일단의 목사들이 1605년 7월에 아버딘 총회를 개최하지만, 정부는 왕명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그들을 추방하였다.⁵⁶ 1618년에 제임스 퍼스 5조례(Five Articles)를 통하여 성공회식 예전을 스코틀랜드 교회로 하여금 강제로 사용토록 조치했으며, 당시 왕의 친서를 통하여 차후로는 스코틀랜드 총회의 결의를 빌리지 않고 왕이 독자적으로 종교적인 안건들을 처리하겠노라고 선언했다.⁵⁷ 제임스의 강압적인 정책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였고, 차후에 전개될 국가와 교회간 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임스를 계승한 찰스 1세는 그의 아버지 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아버지의 정책들을 강도높게 추진하였다. 찰스가 주안점을 두었던 정책들은 절대왕권의 확립과 종교의 통일이었다. 하지만 전자의 강조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대중들의 요구와 부딪힐 것이고, 후자의 강조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의 일전을 예고하

⁵⁵ George Carter, *Outlines of English History* (London 1962), pp. 71-72.

⁵⁶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p. 206- 207.

⁵⁷ *Ibid.*, p. 208.

는 것이었다.⁵⁸

찰스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라우드(W. Laud)를 내세워 종교 통합에 박차를 가했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미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예식서를 라우드의 예식서라 불리우는 '스코틀랜드 기도서' (Scottish Book of Common Prayer)로 대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한 스코틀랜드 남녀 대중들의 저항은 급기야 1638년 국가 언약(National Covenant)으로 이어져, 제2차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는 상황까지 급진전 되었다.⁵⁹ 이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언약도(Covenanter)라고 부른다. 이후, 보다 강력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개혁파들과 연대하여 찰스에 맞서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 (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1643년에 체결하였다.⁶⁰ 이 여세를 몰아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장로제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종교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찰스 1세가 1649년에 참수 당하고, 공화정 시대(1649-1653)와 올리버 크롬웰의 통치 기간인 호국경 시대(1653-1660)를 거쳐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즉위하여 1660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짐으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만 결국 1688년 명예혁명으로 기사희생하였다.

과연 언약도 운동의 과정에서 산출된 문서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특히 여성 언약도들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였는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로, 제1차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제기되어 교회 여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던,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Kingship)과 머리되심(Headship)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이다.

⁵⁸ Herron, *Kirk by Divine Right*, p. 34.

⁵⁹ *Ibid.*, p. 216.

⁶⁰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p. 224-5.

1638년 알렉산더 헨더슨과 와리스톤의 아치발드 존스톤 경에 의해 작성된 '국가언약'은 이러한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⁶¹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head)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구성원으로
서 교리, 종교, 신앙, 치리, 성례에 참여한다.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
까지 이 교회의 교리와 치리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을 수호하기로 하
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약속한다...⁶²

이와같은 내용은 1643년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서도 목격되어지는
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 등의 용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개혁 세력들이 협력해야 할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⁶³

또한 1643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의 중요한 업적인 신앙고백서는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를 다루면서 창조세계 전반에 미치는 하나
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각시킨다.⁶⁴ 특히 제8장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대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교회의 머리(Head)와 주
(Lord)로, 만물의 상속자로, 세계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기름부으셨
다...⁶⁵

이 종교회의의 또다른 문서인 '교회정치의 형태'를 통해 교회의 머

⁶¹ DSCHT, pp. 397, 446.

⁶² 'The National Covenant' i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reprint Glasgow 1994), p. 348.

⁶³ '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 in *ibid.*, p. 358.

⁶⁴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bid.*, pp. 24-27.

⁶⁵ *Ibid.*, pp. 45-46.

리 되신(Headship) 예수 그리스도를 강변한다.⁶⁶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과 머리되심이 상위 개념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반면, 지상에 존재하는 왕권(Kingship)과 남성의 머리됨(Headship) 등은 하위 개념으로써 상위 개념에 종속된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위 개념으로 이해된 부류가 행사하던 권위와 특권은 상위 개념의 틀 속에서 행사되어야 했다. 만약 지상의 권위들이 상위 개념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사회적 구조와 전통을 넘어 하위 개념의 권세들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약도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언약 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근거하여 이에 반(反)하는 어떠한 세력들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특히 언약도의 사자(lion)라고 불리우던, 리차드 카메론(R. Cameron)은 1680년 6월 22일 일단의 추종자들과 함께 산퀴하르(Sanquhar) 신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찰스 2세의 전제정치와 언약 파기를 들어 그를 국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이 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⁶⁷ 1681년에 언약도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도날드 카길(Donald Cargill)이 스털링 근처에 위치한 토우드(Torwood)에서 신앙성명을 발표하여 찰스 2세와 그의 추종자들을 출교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⁶⁸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언약도 운동 과정에서 교회여성들이 전통의 틀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과 머리되심을 위해 헌신

⁶⁶ 'The Form of Presbyterian Church-Government', *ibid.*, p. 397.

⁶⁷ *DSCHT*, p. 745.

⁶⁸ *Ibid.*, pp. 136-137. 도날드 카길과 리차드 카메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하라: Maurice Grant, *No King But Christ: The Story of Donald Cargill* (Durham 1988), pp. 131-141; Jock Purvis, *Fair Sunshine: Character Studies of the Scottish Covenanters* (reprint Edinburgh 1990), pp. 36-51.

했고, 더 나아가 이런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맞서 의연히 저항할 수 있었고, 신적 권위에 의한 선택과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언약도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소극적 역할 유형

제1차 종교개혁의 여성들과 같이, 여성언약도들도 전통적인 위치에서 개혁운동에 기여했다. 그러나, 제1차 종교운동 때와는 다르게, 그들은 보다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빈번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또는 처절한 주검 앞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였다.

언약도의 사자 리차드 카메론의 누이(sister)로서, 마리온 카메론(Marion Cameron)은 언약도 운동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경건하고 젊은 여성이었다.⁶⁹ 1680년 이후, 정부군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약도들을 살상하였는데, 재판의 절차도 없이 또는 경고도 없이 병사들은 그들을 총살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온 카메론이었지만 진정한 종교와 신앙을 버릴 수는 없었다. 정부군을 피해 다니던 마리온과 다른 두명의 언약도들은 추적자들에게 발각되어 쫓기다가 그들에게 포위되고 만다. 군인들은 마리온 등이 소지한 성경을 불태우면 살려주겠노라고 회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느니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대답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다. 결국 마리온과 동료들은 병사들이 쏜 총에 맞아 황량한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하여 리차드와 마리온 카메론 남매는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거룩한 순교의 피를 뿌리며, 그리스도의 왕권과 머리 되심에 반대하는 세속 권력에 저항(抵抗)하였던 것이다.⁷⁰

⁶⁹ Robert Simpson, *Traditions of the Covenanters* (Edinburgh n. d.), p. 338.

⁷⁰ *Ibid.*, p. 339.

언약도의 아내(wife)들은 남편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들을 감내해야 하였다. 남편이 안전을 위해 외국으로 망명했을 경우, 그의 아내는 가택을 방문한 병사들로부터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노략질을 일삼고, 그녀를 위협하고 희롱하며, 곡식을 인분더미로 집어 던지며, 가축, 버터, 치즈 등을 약탈하고, 양과 가축들을 홀고, 가옥을 불태우는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만일 남편이 벌금형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했다면, 그의 아내는 아이들과 더불어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⁷¹

아내(wife)로서, 1682년 프리스트힐의 존 브라운과 결혼한 에어샤야 출신의 이사벨 와이어(Isabel Weir)도 예외는 아니었다.⁷² 브라운은 언약도들의 지도자였으며, 그의 집이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 중인 언약도들을 숨겨주고 보살피 주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인근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모아 복음을 전했다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도록 이끌었다. 정부군은 존 브라운의 행적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686년 5월에 그의 집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정부군은 브라운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여 이사벨과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총살시켰는데,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하여 여러 조각으로 흩어지는 참상을 연출했다.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벨은 울분을 삼키며 젖먹이를 땅에 내려 놓고 흩어진 남편의 머리조각을 추스렸다.⁷³ 이 비보(悲報)를 전해 듣고 달려 온 잔 브라운(Jean Brown)여사가 이사벨의 위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브라운 여사도 펜들란드 봉기(蜂起)가 일어났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⁷⁴

다른 한편, 과부(widow)가 된 언약파 목사들의 아내들이 정부에 탄

⁷¹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66.

⁷² Alexander Smellie, *Men of the Covenant* (London 1909), p. 405; Jock Purves, *Fair Sunshine* (reprint Edinburgh 1990), p. 66.

⁷³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78.

⁷⁴ Smellie, *Men*, p. 407.

원서를 제출하고 항거한 사건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리빙스톤(Livingstone) 여사와 14인의 여성들은 에딘버러의 의회당 앞에 모여 추밀원(Privy Council) 회원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넘겨주었다.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밀원 회원들이여 이 땅과 이 도시에 거하는 당신들의 신실한 목사들에게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거룩한 기능들을 감당하는...우리가 우리 영혼의 위로를 위해 신실한 목사들의 풍성한 축복을 즐겨워하게...우리의 목사들이 신실한 장로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길 청원하옵시다.⁷⁵

사실, 이런 행동을 취하는 데는 두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첫째로, 추밀원 회원들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즉각적인 체포와 구금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추밀원은 그들의 청원서가 반역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판단하였고, 의회당 밖에 있던 여성들에게 산회하라고 명령했다. 당시는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일주일 후에 열릴 추밀원 회의에 그들을 출석케 하여 정식으로 형벌을 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여성들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 몸을 의탁하였고, 정부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 결국 그들에 대한 형벌은 에딘버러에서 추방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⁷⁶

이와 같이 여성언약도들은 제한된 역할 반경(半徑) 내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2차 종교개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4) 적극적 역할 유형

제2차 종교개혁을 통하여 리빙스톤 여사와 14명의 여성들처럼 ‘행

⁷⁵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45.

⁷⁶ *Ibid.*, pp. 45-46.

동하는 교회여성'의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었다.

제2차 종교개혁 운동의 불길을 당겼던, 제니 게데스(Jenny Geddes)는 에딘버러의 여걸(女傑)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교회여성이었다.⁷⁷ 당시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찰스 1세가 켄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라우드(W. Laud)를 전면에 내세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의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시도하였다.⁷⁸ 라우드 대주교는 '잉글랜드 기도서'와 유사한 '스코틀랜드 기도서'를 제작하여 우선 예식의 통일을 꾀하였다. 전자가 의식 중심의 복잡한 예식이었다면, 후자는 강론 중심의 단순한 개혁파 예배의식이었으므로, 1560년 제1차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대중들이 개혁된 예식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⁷⁹ 더 나아가 스코틀랜드 대중들은 라우드가 고안한 기도서가 로마 카톨릭적 예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국왕의 독단적인 권위에 의하여 이것의 사용을 강요 당하고 있다는 점, 왕실대행법정의 권위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가 스코틀랜드의 독립과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였기 때문이다.⁸⁰ 이와 같이 거국적인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찰스는 1537년 7월 23일을 기해 이 기도서에 명시된 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했다. 에딘버러의 성 자일스 성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군중들의 동요에 대비하여 교회당 안팎으로 군사들을 배치하여 경계하였다. 스코틀랜드를 대표할 만한 인사들은 거의 다 예배에 참석하였고, 회중석도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메웠고, 교회당 밖에서 수많은 군중들은 예배의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예배당 안에 자리를 잡은 다수의 교회여성들은 이러한 예식의 집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항거하고

⁷⁷ Elizabeth Whitley, *The Two Kingdoms* (Edinburgh 1977), p. 59.

⁷⁸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p. 211-213.

⁷⁹ *Ibid.*, p. 216.

⁸⁰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58.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부감독인 한나가 예배의 개회를 선언한 직후 회중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하였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회중석에 앉아 있던 여성들 중에 제니 게데스가 의연히 일어나, “네가 감히 그와 같이 거짓된 소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외치며, 자신의 의자를 들어 강단을 향해 힘껏 던졌다.⁸¹ 제니 게데스의 과감한 행동에 자극을 받은 회중들, 특히 교회여성들도 의자를 던지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이 소나기 퍼붓듯이 강단으로 날아들었다. 교회당 밖에 있던 군중들도 합세하여 봉기하는 와중에 교회당 정문과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훼손되었고, 에딘버러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⁸²

결국 제니 게데스를 위시하여 교회여성들의 과감한 행동은 거국적인 저항의 도화선이 되어 이듬해인 1638년에 역사적인 ‘국가언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⁸³ 이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교회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헤드십을 드높이며 진정한 종교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기성(既成) 교회여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연령을 초월하여 나타났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펜틀랜드(Pentland) 출신 소녀들이 맺은 언약이다.⁸⁴ 이것은 ‘아동들의 언약’(Children’s Covenan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⁸⁵ 그 언약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포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 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⁸¹ Whitley, *The Two Kingdoms*, p. 59.

⁸²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61.

⁸³ Hugh Watt, *Recalling the Scottish Covenants* (London 1946), pp. 9-16.

⁸⁴ Smellie, *Men*, p. 378.

⁸⁵ Whitley, *The Two Kingdoms*, p. 125.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시온의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시온의 아픔에 동참하여 통곡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난의 때 시온과 더불어 고통을 나눈다면 시온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⁸⁶

15명의 소녀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소녀들 중에 베아트릭스 엄퍼스톤(Beatrix Umpherston)은 당시 10세에 불과한 나이였다. 다른 소녀들의 이름은 자넷 브라운(Jenet Brown,) 헬렌 모트레이(H. Moutray), 마리온 스완(M. Swan), 자넷 스완(J. Swan), 이소벨 크레이그(Isobel Craig), 마르다 로간(Martha Logan), 아그네스 아이트켄(Agnes Aitken), 마가렛 갈로웨이(Margaret Galloway), 헬렌 스트라톤(H. Stratton), 헬렌 클라크(H. Clark), 마가렛 브라운(M. Brown), 마리온 맥모렌(M. M' Morren), 크리스찬 로리(Christian Laurie) 등이다.⁸⁷

스코틀랜드 교회여성들의 진리를 향한 열정과 신적 권위에 반하는 세력들에 대한 저항은 순교와 같은 희생으로 이어졌다. 교회여성들은 이런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순교를 하나의 강력한 저항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언약도운동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여성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집을 버리고 산과 들을 헤매었으며, 바위틈이나 동굴을 거쳐 삼아 삶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추적하는 정부군에 발각되면 즉결 처형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 공개 처형을 당해야 했다. 앞서 지적한 마리온 카메론과 일행들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1681년 1월 26일에 에딘버러 그라스마켓(Grassmarket)에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이사벨 알리슨(Isabel Alison)과 마리온 하비(Marion Harvie)가 후자의 경우이다.⁸⁸ 이외에도 다수의 교회여성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저항

⁸⁶ Smellie, *Men*, p. 378.

⁸⁷ *Ibid.*

⁸⁸ Smellie, *Men*, pp. 435-438; Grant, *No King But Christ*, p. 259.

하였다.⁸⁹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볼 것 같으면, 제2차 종교개혁기의 스코틀란드 교회여성은 남성의 훌륭한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과 머리되심의 기치 아래 개혁운동의 전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끝맺는 말

이 글의 초두에서 지적한 대로, 제 1, 2차 스코틀란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 또는 '반쪽의 역사'를 회복하여 '온전한 역사'를 지향(指向)하려고 시도하였다. 바른 역사 서술은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흐름을 재정립하고 현실적 삶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행동의 역동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스코틀란드 종교개혁은 오늘의 종교개혁을 바라는 우리에게, 특히 교회여성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몇가지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1차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적인 원리, 즉 성경의 권위, 만인사제론, 이신칭의 등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란드 교회여성들이 의존적 태도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정립이 개혁 원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회여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과 헤드십(Headship) 등 상위 개념인 신적 권위를 기준으로 이것의 반대 개념, 즉 세상의 권위들(kingship, male headship)을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기

⁸⁹ Thomson, *Women of the Scottish Church*, p. 66; Smellie, *Men*, pp. 432-456
Whitley, *The Two Kingdoms*, pp. 186-202.

시작했다는 점이다.

셋째로, 교회 여성들은 하위 개념의 권위들이 상위 개념인 신적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저촉되거나 이를 위반한다면 세속적 권위들에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넷째로, 교회여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여로 말미암아 16, 17세기 당시에도 그들의 가치는 합당하게 인정되었다.

다섯째로, 20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여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 종교적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⁹⁰

⁹⁰ 최근 스코틀랜드 교회사 연구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20세기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제 운동들이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도전받고 있다. 이 글의 각주²를 참조하라.